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장사할 물건과 죄수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실은 큰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 유로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14-20절)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보면 배가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습니다. 모두 폭풍을 견디고 이겨 안전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배에 위기 한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위기의 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처지이지만, 자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속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로 번역된 ‘라트리오’라는 헬라어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종,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편지를 쓰는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가장 많이 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욱 믿음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위기의 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이 이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행 27:23) 풍랑 이는 두려운 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 옆에서 말하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일간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 낮인지 밤인지 분별이 안 되는 가운데 광풍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선주와 사공들은 짐들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오래 먹지 못한 상태로 수일을 지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살기 위해 몸부림 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바울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갈 길을 알려주고, 소망을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폭풍 한 가운데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할 흔들리지 않는 등대가 필요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나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의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위기의 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더욱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통 혼돈뿐인 위기 앞에서도 사명을 따라 갔습니다. 이 사명은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세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살았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냅니다. ‘왜 이토록 수고하는가? 왜 이토록 고통 받아야 하는가?’등 고난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살 의욕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의미가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에 사는 사람은 안전하지 못하고 편하지 못해도 즐겁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에 사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명에 살면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가장 위대하고 거룩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가로되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무엘하 22장 2~3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7/3(월)	7/4(화)	7/5(수)	7/6(목)	7/7(금)	7/8(토)	7/9(주일)
시76-78	시79-86	시87-90	시91-98	시99-104	시105-107	시108-115

QT

이번 주 QT 말씀

7/3(월)	7/4(화)	7/5(수)	7/6(목)	7/7(금)	7/8(토)	7/9(주일)
행7:1-16	행7:17-50	행7:51-8:1	행8:2-13	행8:14-25	행8:26-40	행9:1-9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하나님의 눈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백해 보세요.
3. 더욱 말씀을 귀기울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주세요.
4.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주세요.